

80年代 양계산업은 질병방역에 총력 기울여야



이 창 구
(가축위생연구소장)

우리의 양계산업의 역사는 불과 20년에 지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짧은기간 동안에 이룩한 발전상은 일찌기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그동안 특히 1970년 이후 거의 매년 닦쳐온 유류파동으로 양계 생산가격이 높아지고 있으며, 설상가상 금년초에 있었던 환율인상과 30%에 가까운 사료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계육과 계란의 생산가격 앙등은 그동안 누적된 불경기에 큰 타격을 가져오게 하였다. 사료가격의 앙등뿐 아니라 시설투자의 증가, 그리고 임금의 계속적인 상승압박등 거센 저항에 부딪친 국내 양계산업은 다가오는 파도를 헤치면서 전진을 하느냐, 아니면 후퇴 하느냐 하는 기로(岐路)에 직면하게 되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문을 닫고 다른 분야로 전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대로 내친 걸음에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라도 양계업을 계속 하여야 한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이나 사회적인 면에서 볼 때 더구나 인구의 증가와 소득의 증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의 양계업은 계속 발전되어야 하고 그러므로써 닭고기와 계란의 생산도 비례해서 증가되어야 하는 우리의 숙명적인 과업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현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양계업계가 당하고 또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이기에 이와 같은 현실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오늘날 우리 양계업계가 지니고 있는 크고도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양계업계의 과거를 돌이켜 보건데 때로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수천 수만의 계군(鷄群)을 유지해온 어려움, 또 때로는 이윤이 거의 없는데도 어쩔수 없이 계군을 이끌어 나오다가 한때나마 경기가 호전 되어서 지난날의 어려웠던 시절을 다소나마 잊으면서 양계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면서 지내온 양계업계가 그런대로 규모도 갖추어 놓았고 또 한 번식 사양기술도 놀라울 만큼 향상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로서는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오른것 만큼 절약을 하든지 아니면 값싼 에너지로 대체 하여야 하고 사료 가격이 오르면 사양관리를 개선 해서 사료의 허비나 낭비를 막는 슬기롭고 또한 때와 환경에 적응시킬 수 있는 지혜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가 우리앞에 닥아온 것이다. 이와 같은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먼저 힘써야 할 점은 경영의 합리화 내지는 개선

이라 하겠다. 이제 우리 분야에도 많은 인재가 배출되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러한 두뇌들을 하루속히 끌어들이어 업계에 투입 시키므로써 경영 미숙이나 불합리로 인한 모든 낭비를 막고 또 투자의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상공업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 부터 경영 개선을 위한 전문가를 고용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우리 농업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이 뒤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료대와 인건비의 앙등과 더불어 양계생산비를 높이고 있는 또 하나의 큰 요인은 가금질병(家禽疾病)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외면할 수 없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닭의 주요 질병은 급만성전염병(急慢性傳染病)을 합쳐서 15종에 달하고 있다. 뉴캐슬병과 같은 급성전염병은 백신(豫防藥)의 개발과 응용으로 발생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계속적인 예방(豫防)으로 발생과 피해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양계의 기업화에 따르는 집단밀사(集團密飼)는 만성질병(慢性疾病)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를 증가 내지는 '대형화 시키고 있다. 만성질병의 만연(漫延)은 사료의 효율을 극도로 떨어뜨릴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항생물질(抗生物質) 기타 화학약품의 과용 내지는 남용(濫用)현상을 초래시키게 되며 그 결과는 질병에 대한 내성(耐性) 과 중독(中毒)작용등 공중위생(公衆衛生) 면에 적지 않은 위험부담이 되고있다. 1977년 양계업계가 그런대로 순탄한 길을 걷고 있을 당시 조사한 년간 질병피해는 약 243억원에 이르렀었으며 이로 인하여 허비된 사료대 만도 약 80억원에 달하였던 사실을 감안할 때 질병방역에 대한 양계업계의 일대 각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양계업은 주요 소비지인 도시 근교에서 일어났고 또 그러한 풍조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사육규모가 적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양계업이 전문(專業) 내지는 기업화(企業化)되어 가고 있

는 오늘날 도시근교에서 양계를 계속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과 무리를 수반하게 된다. 항생제(抗生劑)를 포함한 수의약품(獸醫藥品)의 유통 실적을 볼때 1970년 초반의 수의약품 판매액은 약 10억원에 불과 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인 1977년 부터의 년간 수의약품 유통액은 100억원을 넘어 섰으며 현재도 계속 증가 일로에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밀집사육(密集飼育)으로 인한 계사내 환경오염(環境汚染)과 도시근교의 공해(公害)가 겹치므로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질병을 다스리는데 소요되는 경비(經費)로서 그 규모가 커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양계 생산가격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수의약품의 과다사용은 생산비 증가의 구실을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즉 야외(野外)에서 무계획적이고 무절제한 투약(投藥)을 계속하게 되면 병성(病性)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질병의 발생형태가 다양화 되므로 진단(診斷) 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때로는 두가지 이상의 질병이 겹쳐서 발생되기 쉬우므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질병으로 부터 받고 있는 피해는 축산총생산(畜産總生産)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축주나 관리자는 이런점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하고 또한 손실을 실감하지 못한 나머지 이에 대한 사전대책도 매우 소극적인 까닭에 질병 피해는 해마다 늘어만 가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간에 건강을 유지하려면 환경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각 양계농장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공장지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야 되고 이것은 오늘날 양계경영에 있어서 필수조건 이라고도 할만큼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고 있다. 또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양계농장이 먼 산골짜기 깊숙이 위치해 있다고 방심(放心)해서는 아니된다. 특히 자전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저

곳 돌아다니면서 폐계(弊鷄)를 수집하는 닭장사의 양계장 출입은 절대로 금지하여야 한다. 또 종업원이라 할지라도 양계장에 들어갈 때에는 소독된 작업복으로 갈아 입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질병전파의 원인중 대부분이 양계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이나 오염(汚染)된 기물(器物)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상식적인 사항이고 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양계농장들이 이러한 점을 소홀히 하고 있는 까닭에 가끔 질병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또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양계산업의 발전은 적절하고 규모있는 투자와 영양과 위생에 관한 깊은 지식 그리고 관리인의 경영능력과 종업원의 성실도에 따라 그 성패(成敗)가 좌우 된다. 이상 기술한 여러가지 요인중 어느 하나라도 불신허게 되면 조만간에 큰 피해를 보게된다는 것은 오랜기간 동안 양계업을 경영해본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오늘날 닭의 품종개량(品種改良)은 대부분 도입육종(導入育種)에 의존하고 있고 사료자원 또한 도입곡물에 의존하고 있는 까닭에 실질적으로 양계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關鍵)은 가끔질병 방제를 위한 예방위생(豫防衛生)과 종업원의 성실도 그리고 경영관리(經營管理) 기술여하에 달려 있다. 1980년대야 말로 과거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시대가 될 것 같다. 그러나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던간에 버티고,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양계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활 철학인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든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국내 양계 산물가격이 오르면 자유경제원칙에 따라 외국으로 부터 수입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양계업도 하나의 국내산업이기 때문에 없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난 10여년 간에 걸쳐 정책면에서 기술면에서 많은 고무적인 시책이 베풀어 졌고 또 국내외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이 좋은 방안도 제

시해 주었다. 그 성패는 얼마나 시책들이 구현(具懸)되었고 귀중한 양계기술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나에 달려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양계인들의 마음의 자세가 믿음직스러워야 한다. 어려울때 굽히지 말고 경기가 다소 회복되었다 하여도 방심하지 말고 80년대를 줄기차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우리 업계를 이끌고 나아가야 한다. 현재 정계에서는 새로운 좋은 헌법을 만든다고 야단들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헌법이라 하여도 운영하는 사람이 잘 해주어야 좋은 법도 빛을 낼 수 있다. 국내양계 업계에서도 시책의 설정과 개선에 대하여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좋은 시책과 더불어 모든 양계인들이 성실하여야 하고 또 협동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양계업계의 권익을 위하여 굳건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생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유통까지 일관성 있는 양계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다 같이 힘을 합치고 노력하여 우리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바로 80년대에 있어서 우리 양계인들이 수행하여야 할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